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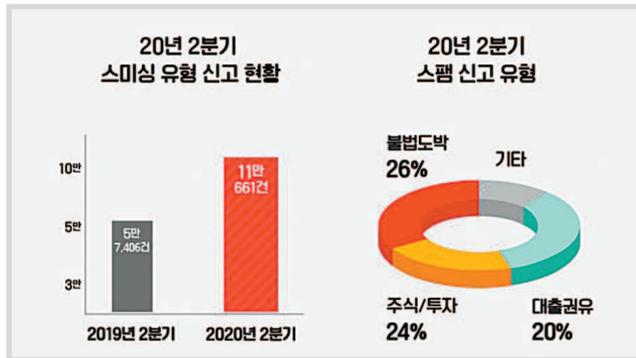
## 비즈 포커스 | 코로나19 악용한 보안위협 급증

# 2분기 스미싱 기승...작년비 92% ↑

후후, 2분기 스미싱고 557만건 접수  
재난지원금 신청 가장한 사기도 늘어  
"출처 불분명한 앱·첨부파일 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악용하는 보안 위협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후후엔컴퍼니는 스미싱 차단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2분기 스미싱 건수 통계를 12일 발표했다.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1892건 증가한 556만7038건의 스미싱 신고가 접수됐다. 특히 '스미싱'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담긴 링크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2분기 스미싱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증가한 11만661건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관련



연 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가장한 사기도 급증했다. '재난', '지원금', '재난지원금' 등 키워드가 의심 단어로 새롭게 등록됐다.

후후엔컴퍼니는 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회사·수사기관 등의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되도록 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도 늘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후는 1월부터 전화 가로채기 탐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허태범 후후엔컴퍼니 대표는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해 계좌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며 "스마트폰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랩이 상반기 발생한 보안위협을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주요 보안위협 톱 5'에도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올랐다. 공격자들은 코로나19 가짜 정보, 세계보건기구(WHO)나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칭 메일 등으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 스마트폰 보안위협도 늘었다. '택배 배송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이 대표적 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한편 '선착순 지급', '한도 소진 임박' 등의 문구를 넣어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다. 안랩은 "코로나19 이슈를 활용한 피싱 공격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이나 인터넷 주소(URL) 실행금지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SKT-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자리 플랫폼 구축

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정보통신기술(CT) 기반 장애인 일자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SK텔레콤이 공동 기획한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의 적용 사례다. 양측은 ICT를 기반으로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맞춤형 IT 직무 전문 교육부터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결, 취업 사후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20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장애인 ICT 보조공학기기 공모전'도 공동 주관한다.

## KT, "제주, 실내보다 생태 관광지 인기"

제주 여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 관광지보다는 생태 관광지가 인기를 얻고 있다.

KT는 제주도 주요 관광지와 방문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의 방문객 수가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공항은 2월 이용자 수가 1월보다 39.28%,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25.35% 급증했다. 하지만 3월 이후 회복하기 시작해 5월에는 4월보다 20% 증가했다.

제주도 내에선 오름과 휴양림 등 생태관광이 인기를 끌었다. 5월에는 4월과 비교해 카멜리아힐(202.98%), 롯데스카이힐CC 일대(168.11%), 오백나한(157.80%), 제주돌문화공원 및 에코랜드(155.33%), 향파두리 항공 유적지(154.21%) 등의 방문객이 늘었다. 6월에는 혼인지(368.18%), 화순곶자왓생태탐방로(204.01%), 한라생태숲 및 제주마방목지 일대(134.79%), 영도폭포(130.26%), 비치미오름(121.36%) 등이 5월보다 늘었다.



## 쿠팡, QR코드 활용 등 방역 프로세스 자동화

쿠팡은 방역 프로세스(사진)를 자동화했다고 12일 밝혔다. QR코드를 통한 출퇴근 관리는 물론 모바일과 연동한 블루투스 체온계를 통해 직원 체온까지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기작업 없이도 하루 3만 명 이상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QR코드 관리는 직원은 물론 방문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명주 쿠팡 인사부문 대표는 "지속적 기술개발과 자동화 작업을 통해 직원들이 불편함 없이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 금호건설, 2020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금호건설이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한다. 모집 분야는 시공(토목·건축·기계·전기), 안전관리, 주택영업·기획, 법무, 기획·재무 분야다. 지원 자격은 관련 전공 기술업자(주택영업·기획, 기획·재무는 전공 무관) 및 2020년 8월 졸업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1차면접(역량면접), 2차면접(인성면접), 건강검진,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입사지원서는 19일 오후 6시까지 금호건설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한다.

정용운 기자

## LG전자, 의료진에 '전자식 마스크' 기부

공기청정기 특허 기술 적용 마스크  
일반 판매 시기와 가격 등은 미정

LG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 가전과 정보기술(IT)을 집약한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했다.

전자식 마스크에는 LG전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의 특허 기술이 담겼다. 앞면에는 교체 가능한 HEPA필터(H13등급)가 2개 있다. 사용자는 HEPA필터를 통과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된다. 마스크로 유입되는 공기 양은 초소형 팬이 조절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전기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일정 수준 이하로 방출됨을 인정한 전자기장 환경인증(EMF)도 받았다. LG전자는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위해 전자식 마스크를 기부하는



LG전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특허 기술이 담긴 전자식 마스크 2000개를 기부했다. 사진제공 | LG전자

것도 검토 중이다. 일반에 판매하는 시기와 방법, 가격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강규 LG전자 에어솔루션사업부장(부사장)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장시간 근무해야 하는 많은 분들께 전자식 마스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20만 원대 1등급 50형 UHD TV 사세요" 홈플러스가 '2020년형 인켈50형 UHD TV'를 내놓았다. 에너지효율 1등급에 가격은 기존 모델보다 17% 저렴한 32만9000원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으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 받아 2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 홈플러스

## "카카오톡 비켜!"...유통업계, '모바일 선물 서비스' 직접 나선다

자사 온라인몰에 선물하기 서비스 속속 도입  
다양한 품목 및 할인 특가 적용으로 차별화

유통업계가 휴대폰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는 수신자의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만 알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선물을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낳은 언택트(Untact·비대면) 소비와 편리함, 프리미엄의 합성어인 '편리미엄' 소비 트렌드와도 연관이 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에 그쳤으나 요즘 트렌드는 자사 온라인몰에 직접 선물하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특징이다. 자사 온라인몰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품목의 상품은 물론 할인 특가 상품까지 선물할 수 있는 게 차별화 포인트다.

GS샵은 6일 온라인몰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 수신자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메시지를 기재하고 결제하면 800만 개에 달하는 GS샵의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렌탈과 여행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낸 선물은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수신자는 선물을 받을 주소 입력하면 된다. 선물을 받은 후 5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된다. 이광배 GS샵 매장마케팅팀장은 "주소 확인 없이 선물하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 핵심"이라며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헬스&뷰티(H&B)스토어 CJ올리브영도 공식 온라인몰에서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수신자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CJ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14만 개 상품을 선물할 수 있다. 주요 상품인 화장품의 특성을 반영해 피부 상태와 취향에 따라 색상 및 향을 바꿀 수 있는 옵션 변경 기능도 마련했다.

티몬은 최근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의 영역을 지역



유통업계가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에 벗어나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GS샵 온라인몰의 선물하기 서비스. 사진제공 | GS샵

상품군으로 확대했다. 지역에서 쓸 수 있는 할인 식사권과 뷰티숍 이용권 등을 모바일로 선물 가능하다. 이진원 티몬 대표는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소비를 촉진할 수 있어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